

이기는 삶

억울하고 원통할 때 참아라



옛날 어떤 마을에 사는 처녀가 아기를 배고 말았다. 부모는 놀라 딸을 다그쳤다. “어느 놈의 자식이나?” 딸은 궁지에 몰려 대답이 궁색한 나머지 그만 엉뚱한 이름을 대고 말았다. “동네 위에 절의 백은스님이예요” 놀랍기 이를 데 없는 소리였다. 턱이 높은 스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화가 나서 당장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었는지라 부모는 점잖게 말하였다. “미저한 딸을 돌보아 주시어 스님의 혈육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디.”

그러자 스님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 들었는지 “아, 그래요?” 할 뿐이었다. 마침내 딸이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부모는 울화가 치밀어 당장 쫓아가서 스님의 목살을 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스님은 “아, 그래요?” 할 뿐 그 딸의 입장을 생각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괴로워진 딸이 진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부모님께 고하였다. 진실이 밝혀지자 부모님은 백은 스님께 한 일이 너무나 미안하여 스님을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백은 스님은 “아, 그래요?” 하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도심이 깊은 어느 스님의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내용은 크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오해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심지어 너무 억울하여 영영 울기도 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 백은 스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면

결국 그 오해가 풀릴 것이므로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내가 한 일이면 그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므로 역시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역모의 누명을 쓰고 또는 역모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과연 저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억울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것이다. 누명이라면 결국 벗겨질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 죽음 앞에 차라리 의연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어딘가 모

르게 안쓰러워 보이고 비겁하다. 그와 같은 순간에 온전히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닭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을 때 꼭꼭 참고 이겨야 한다. 평소엔 남의 잘못에 대하여 잘 떠들어 대던 사람이 정작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남의 말이라고 너무 쉽게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망신을 당하고 천 번 만 번 자결할 만큼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때,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aim of Satan?

마귀의 목적은 영생 길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 ▶ The aim of Satan is to destroy the way to immortality and kill all humans.

6000년 전에 마귀는 에덴동산을 차지했고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 ▶ Six thousand years ago, Satan occupied the Garden of Eden. Adam and Eve was ensnared by the spirit of Satan.

그들의 마음과 몸은 마귀의 마음과 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 ▶ Their hearts and bodies changed into those of Satan.

그들은 죽음의 신인 마귀의 영에 의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 ▶ They were killed over the long run by the spirit of death, Satan.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피를 통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구하심으로써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 ▶ But, the life of God continued to descend to their posterity through blood. Satan has failed to destroy the life of God totally because God saved Noah's family.

마귀는 그일을 계속 시도하면서 적그리스도로서 왔습니다. 이후 마귀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 ▶ But Satan tried again and came as the anti-Christ. Afterwards, Satan taught people that humans coul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fter the death of the flesh.

마귀의 목적은 모든 인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 ▶ The aim of Satan is to kill all humans.*

by Alice

부처를 찾아내서 사육(飼育)하겠다는 망 나무입니다. 인간 각각, 꽃나무 각각은 거대한 나무와 한 뿌리로 연결됨으로써 더 이상 개별 개체가 아닙니다. 나와 모두가 한 뿌리, 한 몸의 존재입니다. 각자의 꽃나무는 성장하여 한 그루의 거목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필시 최제우 하나님이 노래 한 그 꽃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風雨霜雪過去後
풍우상설과거후

一樹花發萬世春
일수화발만세춘

바람 비 서리는 지나간 뒤
한 나무 꽃 피우니
온 세상 무궁토록 봄이로다.

- 동경대전, (御吟(우음)) -

만고풍상을 겪은 후 영원한 봄날이 올 것을 예언한 최제우 하나님의 시입니다. 봄 춘(春)은 파자(破子)로 삼위일체 하나님(三)의 완성자(人)가 등장한 날(日)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꽃나무가 피면 그 꽃나무 한 그루로 인해 온 세상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세계로 바뀝니다. 숲덩이 하나면 태산 같은 숲산이라도 하나의 불덩이가 되듯 말이지요.

아무리 작금의 마귀 풍파가 거세어도 이미 한 나무 서있으니, 꽃은 피고 붉은 옵니다.*

金澤 / kimtaek8@nate.com

꿈에 대하여...〈11〉

큰 나무 꿈과 해석



〈생명의 나무, 구스타프 클림트〉

《5월 31일 L의 꿈》

학교 운동장 같은 땅. K 청년이 여러 사람들과 작은 꽃나무를 심고 있다. 그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지난 번에 못 심은 나무를 심어서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 한다. 청년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씩 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새 그가 꽃나무의 뿌리를 밟아버려서 잡고 따라가고 있다. 그 뿌리를 따라 가다 보니 아주 커다란 나무에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흰 가운을 입은 어떤 의사가 청년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큰 나무 앞에 서라고 한다. 사진기 프레임 안에 청년과 등 뒤의 커다란 나무가 하나로 보인다. 문득 큰 나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서 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사진을 찍고 있다. 찍히는 사진을 보니 모두들 한결 같이 각자 큰 나무를 배경으로 나무와 하나가 된 듯 서있는 모습이다.

: 이 꿈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마을로 떨어져서 집들을 태우는 꿈을 꿈에 대하여 ②, ③ 참조) 꿈 L이란 분이 K라는 청년에 대해 꿈입니다.

불교 계통의 공부를 하는 청년에 관한 꿈이다보니 해석에 있어 불교적인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꿈이 전하고 있는 바는 종교적 틀을 넘어선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전 꿈에서 내 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별들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된 장면이 있었다면, 이 꿈에선 나무들이 거목과 뿌리로 연결된 장면이 나옵니다. 해석 이전에 그 장면 자체를 음미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꿈》 학교 운동장 같은 땅. 한 청년이 여러 사람들과 작은 꽃나무를 심고 있다. 그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지난 번에 못 심은 나무를 심어서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 한다.

《해석》 학교 운동장은 배우는 학생들이 뛰놀며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이 꿈이 영적인 공부를 함께 하는 도량(道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천지합일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동서양 곳곳에 우주의 중심축으로서의 우주 나무(宇宙樹), 세계수(世界樹)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다. 고대 중국의 통천신수(通天神樹), 환웅이 내려온 신성한 신단수(神壇樹)도 그에 이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동산 가운데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생명나무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린 채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하는 존재이며 감정과 오욕질정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간자에게서 나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연유인 것이지요.

나무란 말을 나 + 무(無)로 보면 ‘나 없음’, 무아(無我)가 됩니다. 나무는 그 이름 자체에 나라는 의식, 아상의 내가 죽고 사라진 존재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나무 또한 나의 내면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하는 내 안의 하나님, 불교적으로는 자성(自性)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K라는 청년이 사람들과 꽃나무를 심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 되는 공부를 하는 도반(道伴)들과 함께 내 마음에 생명의 나무, 자성(自性)의 나무를 심는 장면이 되겠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오히려 거꾸로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게 하겠다.”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과나무 즉, 하나님의 신을 모심으로써 나라는 의식의 세계의 종말, 말세가 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꿈》 그 청년이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씩 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새 그가 꽃나무의 뿌리

를 밟아버려서 잡고 따라가고 있다. 그 뿌리를 따라 가다 보니 아주 커다란 나무에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해석》 청년이 “나무 한 그루씩 맡아서 관리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성(自性)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를 관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인간 이 체로의 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이며 말하는 마귀 신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 나, 마귀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키워보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불성설(語不成說). 그것은 새우가 고래를 잉태하고 키워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래가 새우를 품을 수는 있어도 새우가 고래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음 장면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나무의 뿌리를 더듬어 따라가니 뿌리가 거대한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각자의 내면의 하나님, 자성(自性)입니다. 그런데 내 자성(自性)이 실은 맺줄 같은 뿌리를 통해 거대한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목(巨木)은 영적 거인, 이기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인도의 용어를 빌자면 큰 나무는 브라흐만(Brahman), 작은 꽃나무는 아트만(atman)이라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심었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꽃나무는 이미 거목(巨木)과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목의 분신(分身)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맺줄과도 같은 뿌리로 연결된 이 나무는 엄마와 자식으로서 한 몸입니다.

이 꽃나무는 이미 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自存)의 존재, 자유(自由)의 존재입니다. 감히 인간 내가 심을 수도,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는 마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좌정한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꿈》 흰 가운을 입은 어떤 의사가 청년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큰 나무 앞에 서라고 한다. 사진기 프레임 안에 청년과 등 뒤의 커다란 나무가 하나로 보인다.

《해석》 이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진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꿰뚫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정견(正見), 관(觀), 위빠사나(Vipassana)입니다. 의사의 사진기는 큰 나무와 나를 한 프레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 청년을 품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둘이 하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무를 심었다.”고 여길 때, 나는 나무와 다른 존재입니다. 게다가 ‘관리’까지 하려할 때의 그는 감(甘)이고 나무가 오히려 을(乙)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자성(自性)의 나무는 내가 심을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거목의 분신입니다. 꽃나무를 심은 것도, 기르는 것도 한 뿌리로 연결된 큰 나무, 엄마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자성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관리한다는 것도 내 중심의 자기착각 일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사진기 한 프레임 안에 여실히 보여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뒤에 네 자성(自性)의 나무가 거대하게 서 있다. 네가 자성(自性)의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자성의 큰 나무가 큰 나무가 너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꽃나무요, 꽃나무가 바로 큰 나무이니 내가 바로 생명의 큰 나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사진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 누구누구로서가 아니라 큰 나무로서의 자화상 말입니다. 나의 진면목, 우리의 정체는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생명나무이었던 것입니다.

선불교(禪佛敎)의 화법을 빌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성(自性)을 찾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묻자 “네가 이미 부처인데 무슨 헛소리냐?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고?”라며 제자의 머리를 몽둥이로 갈기는 장면입니다. 관념의 유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번역해보자면 “무슨 헛소리냐. 네가 네 안의 불성을 찾고 키운다냐? 네가 지금 인간인 체로 하는 소리라면 마귀가